



# 이집트 전시회(IAAPW 2001) 참관기

차원호 / 성안기계(주)계장

지난 9월 1일 ~ 4일에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의 포장·인쇄·플라스틱 전시회인 'IAAPW 2001'가 고대 문명의 발생지이자, 사하라 사막, 나일강, 피라미드, 스프링크스의 상징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198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 관광객 보호를 위해 계엄령이 발효중이라는 현지 여행사 직원의 말에 약간의 두려움과 의아함으로 미개척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에서의 이집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로 인식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을 중심으로 대창기계, 명일공업사, 한영전자, 한영자동제어, VF KOREA, 산호기계, 통일공업, 그리고 성안기계 이렇게 8개 업체가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한편, 아랍 최대의 인구(약 6천7백만명)를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인근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오는 7월부터 역내 수출입 무관세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이집트의 인쇄산업은 4억4천만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매년 35%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활발한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관련 기계의 98%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뒤이어 영국, 이태리, 일본 등의 제품이 이집트의 인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집트의 포장산업은 4억8천백만달러의 시장 규모로 매년 25% 이상 성장하고 있어 산업 관련 기계의 70%는 극동아시아 지역 국가,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총 16,000 sqm 규모에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중동의 15개국, 20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4일간 19,941명의 방문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CMM JAPAN, CMM INT'L, CHINA PACK 등 여타 유수의 전시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시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유치하였으며, 전시회 폐막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참가자와 방문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체로 성공한 전시회였다고 판단된다.

영국에 본사를 둔 전시회 전문 업체인 'ITE GROUP'의 선진화된 전시회 운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이번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 더



▲ 이집트 전시회에 참가한 성안기계 부스

불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많은 국제 전시회에 관련 업체의 참여 저조와 이로 인해 점점 규모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인쇄 및 포장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외국의 전문 전시업체를 Outsourcing해서 국내 산업 부흥 및 수출 Drive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느낀 이집트의 인쇄산업은 아직까지는 플렉소 인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포장산업의 발달 및 문화 수준 향상에 따라 그라비아 인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그라비아 인쇄 관련 업종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인쇄 및 포장 관련업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집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업

체들(대만 포함)의 발빠른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지를 더욱 더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집트 인쇄 업체 중 상당수가 대만산 기계를 사용(대체로 품질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음) 하고 있으며, 저가의 중국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시회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내수 시장에서 눈을 돌려, 이집트와 같이 특정 지역의 거점시장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들이 가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미개척 시장에 대한 개발 의지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발빠른 대응 및 추진력이, 값싼 노동력과 저가의 제품을 앞세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을 포함한 인쇄 및 포장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기임을 세삼 깨달았다. ☐